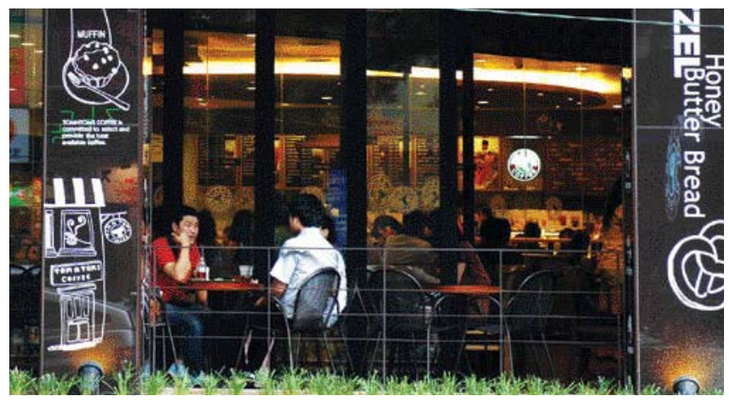
스타벅스·케냐·엔제리너스·할리스…

광주 커피 전문점 224개

21개 브랜드 치열한 경쟁…전국 2144개 작년말比 500개 급증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한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에도 커피 전문점들의 출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스타벅스가 광주지역에 6번째 매장이자 전국 342호점인 광주충장로점을 오픈했으며 엔제리너스도 전남대 후문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에 지역 토종 브랜드까지 모두 21개 브랜드의 224개 점포가 성업 중에 있다.

여기에 개인이 직접 커피를 볶아 커피를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 등 소규모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커피전문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커피전문점들은 그칠 줄 모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에는 토종 브랜드인 케냐 에스프레소가 132곳으로 가장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그룹 계열사인 엔제리너스 18곳, 국내 브랜드로 국내 커피시장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할리스 12곳, 지역 토종 브랜드인 커피볶는 집과 국내 브랜드인 요거프레소가 각각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들 간의 출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달까지 광주를 포함해 전국 27개 매장을 문을 연 스타벅스와 지난해 103곳을 오픈하고 올해도 80개를 추가 개장한 엔제리너스는 연말까지 모두 40여개를 추가 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 9월 초 300호점 돌파를 앞둔 카페베네를 비롯해 대부분의 커피전문점들이 연말까지 30~50개씩 점포를 추가 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어 이들 점포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12개 브랜드가 운영 중인 점포는 2144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400~500개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커피전문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를 넘어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한데다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을 사무실 삼아 혼자 일하는 사람(일명 코피스족)들을 비롯해 젊은 층에게 '생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제리너스 관계자는 "약속 장소로 정하고 오는 사람, 일하러 오는 사람 등 손님들이 다양한 이유로 커피전문점을 찾는다"며 "아직 지방에는 진출할 만한 곳이 많고 매출도 계속 늘고 있어 점포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사회적기업 육성 협약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광주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광주시는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광주은행 제공〉

소비심리 꿈틀…추석마케팅 시동

유통업계 VIP 겨냥 프리미엄급 선물세트 보강

경기회복에 백화점 등 지역 유통업계가 프리미엄급 추석 선물세트를 늘리고 이색 선물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추석 마케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준비물량을 작년보다 50% 가량 늘렸다. 특히 기업 등 우량 고객들을 겨냥한 초고가 선물을 강화했다.

홍삼 중 비율이 1% 내외로 최고급 홍삼으로 꼽히는 천삼에 잣나무로 만든 박스로 포장을 한 '강개상인 천삼세트(130만원)에, 한 마리에 24만원 하는 대형 참조기(길이 33㎝)만 선별해 만든 '신세계 왕특대굴비(5마리·120만원)' 등을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고급선물세트인 명품특선 '수'를 비롯해 고가 선물세트 품목과 물량을 작년보다 40~50% 가량 늘렸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특선 암소 한우세트'(6.2㎏·90만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400~500두에 불과한 희귀 한우인 '프리미엄 흑소 세트(4.2㎏·60만원) 등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정육세트를 1등급 이상 프리미엄급으로 구성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최고급 홍삼으로 만든 '홍삼정天'(200g·105만원)을 비롯해 순금을 전기분해해 증류수에 녹이는 기술을 적용해 재배한 '금멜론 세트'(12만5000원), 최고급 쥐포로 생선의 머리와 뼈를 제거한 뒤 꼬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말린 '삼천포 화어(花魚)'(30만원) 등을 내놓았다.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도 프리미엄급 추석 선물을 대거 선보였다.

신세계이마트는 '제주 황제굴비'(99만원), '산뽕나무 상황버섯세트'(75만원), '횡성한우 1++등급 냉장구이'(55만원) 등을 선보였다. 롯데마트는 분만 경험이 없는 미경산(未經産) 한우 암소 선물세트(50만~100만원)를 처음 선보이고 300세트 한정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 중점 관리

국세청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1만6000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지난 26일 실시된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37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매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업황파악·현장확인 등을 통해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해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중점관리대상자가 4만1325명에 달했던 것을 비롯해 2007년 2만5578명, 2008년 2만2944명, 2009년 2만8222명이었고, 올해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1만6376명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쳐 275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1조471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휘발유ℓ당 1694.4원…전국서 가장 싸

광주지역 휘발유 값이 전국에서 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주 광주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36원 내린 1694.36원으로 전북(ℓ당 1694.98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이었으며 ℓ당 1773.19원으로 광주와 ℓ당 78.83원이나 차이가 났다.

자동차용 경유도 광주는 일주일 사이 ℓ당 2.28원 하락하면서 1493.81원을 기록했다. 전북(1490.67원), 전남(1497.92원)과 함께 전국에서 경유값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도 휘발유 값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이번주 1698.74원을 기록했다.

이번주 휘발유 전국 최고가는 ℓ당 2030.00원, 최저가는 1,589.0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1,722.5원), GS칼텍스(1,719.7원), 현대오일뱅크(1,704.8원), 에스오일(1,704.9원) 등 순이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장세 비관은 금물 매수 기회 노려야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대부분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더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확대 해석해 향후 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조정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1,70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미국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한 때문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현 지수에서 추가로 조정을 받을 때는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장세를 너무 비관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할 근거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채 수익률과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Plus)의 최근 추이를 참고해 볼만하다.

올해 들어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봄 글로벌 증시를 나락으로 몰았던 남유럽 위기 때보다도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두드러진다.

이번 주 증시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다소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미국 경기 수준을 판단할 만한 ISM제조업지수와 고용지표 등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장세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될 수 있는 국면이다.

특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표가 전망치에 비해 실망스런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반면,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기지표가 정책결정을 위한 열쇠라는 점에서 지표에 대한 실망은 그 크기만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자라날 전망이다.

이번 위기의 본질이 경기부양책 종료 이후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인 만큼, 경기침체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것도 결국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지표 만큼이나 정책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며, 위기의 확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침체 우려로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증권사별 9월 코스피지수 예상치

증권사	지수범위	전망 배경
교보	1650~1800	모멘텀 부재 속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대신	1670~1800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이후 이익모멘텀 약화
동양종금	1680~1820	글로벌 유동성 유입, 엔고 현상 등이 긍정적
삼성	1680~1820	월 초 美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 일시 이탈 가능
신한	1700~1820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국내 수급의 취약성
우리	1700~1920	각국 추가 경기 부양 나서 경기 둔화 압력 감소
현대	1700~1830	달러 약세 전환, 아시아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